世界 主要 FTA 成功 및 韓國의 被害 事例

2003. 10.

K O T R A

目　次

Ⅰ. 最近 世界 FTA 動向................................ 1

Ⅱ. 主要國의 FTA 推進 戰略 3

Ⅲ. 世界 主要國 FTA 成功事例 11

IV. 主要 FTA市場에서 韓國商品 差別事例 .. 16

Ⅰ. 最近 世界 FTA 動向

1. 現 況

□ 2003. 5월 현재 총 153개 FTA 발효 중

○ 지역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한 '90년대에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 전체 83%인 127개 발효

FTA 지역별 분포

	구주·러시아·**CIS**·중동·아프리카			미주	아시아·대양주	지역횡단	합계
	서구·중동·지중해	중동구·러시아·**CIS**	사하라이남·아프리카				
55-59년	1						1
60-69년	1			1		3	5
70-79년	10			1	2		13
80-89년	1			2	2	2	7
90-94년	**18**	**7**	**1**	**2**	**3**		**31**
95-99년	**30**	**25**	**1**	**2**	**1**	**1**	**60**
2000년 이후	**15**	9	**2**	**2**	**3**	**5**	**36**
합계	**76**	**41**	**4**	**10**	**11**	**11**	**153**

주) 1. WTO(GATT)에 통보된 RTA(Regional Trade Agreement)로 2003.5.5현재 발효중인 184건중, EC신규 가입에 따른 추가통보나 GATT나 GATS의 중복통보 등, 동일 FTA로 간주되는 31건은 제외

자료원 : WTO

○ 현재 WTO가맹국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FTA 체결

- WTO 146개 회원국 중 미 발효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 6개국에 불과

※ 실질적인 국가단위는 한국, 중국, 몽골, 대만 4개국

○ NAFTA, EU, AFTA, MERCOSUR의 교역규모가 세계 총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65%(2000년, JETRO자료)

□ 협정 포괄범위 확대 및 내용 심화 추세

○ 최근 들어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하기가 어려운 분야로 협상 대상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경향

- 과거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한 관세장벽의 현저한 인하
- **비관세 장벽 및 서비스분야로 확대**, '93년 체결된 NAFTA가 대표적으로 미 체결국에 가시적·직접적 불이익 초래
  ※ 2003. 8월 체결된 대만-파나마 FTA는 금융서비스도 포함

각 FTA에 포함된 항목 비교

구 분	미·이스라엘	NAFTA	미·요르단	AFTA	캐나다·칠레	멕시코·칠레	EU·멕시코	호주·뉴질랜드
관세철폐	○	○	○	○	○	○	○	○
수량제한금지		○		○	○	○	○	○
세이프가드조치	○	○	○		○	○	○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	○		○	○		○	○
원산지규정	○	○	○	○	○	○	○	○
세관통관절차		○	○	○	○	○	○	○
투자		○		○	○	○	○	○
서비스	○	○	○	○	○	○	○	○
규격인증(MRA)	○	○		○		○	○	○
위생·검역	○	○		○		○	○	○
정부조달	○	○	○	○		○	○	○
지적재산권		○	○	○		○	○	○
경쟁	○	○		○	○	○	○	○
분쟁해결	○	○	○	○	○	○	○	
전자상거래			○					
인력이동		○	○		○	○		
환경		△	○		△			
노동		△	○		△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1

□ 2005년말 경에는 300여개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WTO)

○ 수년 내 세계에는 대륙차원의 2개의 거대 무역블럭 출현 예상 <EU東進(2004), FTAA(2005 전망)>

Ⅱ. 主要國의 FTA 推進 戰略

1. 美 國

○ 기존의 다자주의 우선 정책에서 탈피, 지역주의와 병행

- 민감한 이슈(농업, 노동, 환경, 경쟁 및 남북문제 등)에 대한 다자간 일괄타결 애로 전제

- FTA가 무역자유화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

○ 주요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 기 체결한 FTA는 NAFTA,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등 5개에 불과하나 현재 5개 협상중, 다수가 제안 또는 연구 중

· 협상 중 : 미주 34개국, 중미 5개국, 호주, 모로코, 남아프리카 5개국 · 제안 중 : 인니, 필리핀, 이집트, 태국, 브루나이, 바레인 등 · 연구 중 : 한국, 일본, 대만, 뉴질랜드 등

- 2005년 목표의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출범에 앞서 중남미 주요 국가 혹은 경제블록과의 선별적인 개별 FTA체결에 노력

  · FTAA(세계 최대 FTA) : 인구 8억명, GDP 13조불

  · 중남미시장의 EU 등에 잠식저지 및 대중남미 패권유지 목적

  ※ 특히,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중남미국가들이 대미 양자간 FTA협상 조속 추진을 제안

○ '03. 5월 부시대통령, 향후 10년 내 미-중동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

- 세계 최대 에너지 보고이자 대미 테러온상인 중동을 미국에 우호적이고 의존적인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EU와 중국세력 확대 견제 목적

- OPEC국가들보다는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미국에 보다 우호적인 모로코, 이집트, 바레인, UAE 등과 우선 체결 전망

○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를 마련, 1차로 싱가포르와 FTA 체결

미국의 FTA 추진현황

구 분	자 유 무 역 협 정	비 고
시행중	이스라엘	1985년 발효
	NAFTA(캐나다, 멕시코)	1994년 발효
	요르단	2001년 발효
체결완료	칠레	2003. 6월 서명(04년 발효)
	싱가포르	2003. 5월 서명(04년 발효)
협상중	미주(FTAA)	2005년 출범목표, 34개국
	중미(5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호주	2003년 체결 목표
	모로코	2003년 체결 목표
	아프리카 5개국	사하라이남(남아공 등 5개국)
제안	인니/필리핀/태국/우루과이	
	중동	부시대통령 제안, 2013년 출범목표
	바레인, 이집트 *중동 FTA 추진 첫 행보	미국 체결의사 발표
연구중	한국/대만/뉴질랜드/일본 등	ITC 등 타당성 조사

2. E U

○ 70년대부터 FTA 적극 추진 시작

- 회원국을 포함 총 74개 국가 또는 지역과 FTA/관세동맹 체결

- EU 확대협상('02년 타결) : 폴란드, 체크, 헝가리, 발트 3국, 사이프러스 등 중동구 10개국이 2004.5.1일부 정식회원국이 됨
  ※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2007년 가입 목표로 협상 추진

○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경쟁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 횡단적 FTA도 적극 추진**

- 칠레와 FTA 발효(2003.2), 2010년까지 지중해연안 12개국과 개별 협정 완료

- 사우디 등 걸프 6개국,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 4개국과 FTA 협상

- 대만, 싱가포르, 이란 등 아시아 국가와도 FTA 논의단계

3. 中 國

○ **중국주도의 아시아지역 FTA체결을 통해 위상강화를 도모**

- 전세계 지역주의 강화에 대처하고 자국의 위상과 권익보호
- APEC의 아시아국가 경제적 이익 보호기능 미흡
- ASEAN 역량 부족 및 FTA 효과 미흡 등에 대처
-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9.11테러 이후 역내교역증대 필요성 공감

○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아세안제국과의 FTA협정체결에 주력**, 주도권장악을 위해 **일본과 경쟁 가속화** 전망

- 2002.11월 중-ASEAN 정상회담에서 10년내 FTA창설을 포함한 포괄경제협력기본협정 서명

  · 실질적으로 전체 상품무역 및 서비스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원활화 도모

  ※ 특히, 500개 품목(주로 농산물)은 조기관세철폐('06년부터 무관세)

- FTA체결시기를 아세안 개별 국들의 발전단계별로 2개 그룹으로 구분

  → 창설 6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는 2010년, 후발가입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 출범

  ※ 중국-아세안 : 인구 17억명, GDP 2조불, 총교역 규모 1조 2,300억불

중국-ASEAN FTA체결 기대효과(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GDP증가(ASEAN 0.9%, 중국 0.3%)
○ 수출증가(ASEAN 대중국수출 48%, 일본 대ASEAN 수출 55.1%)
※ 대규모 경협프로젝트 추진 제안(항공분야 컨소시움, 아시아 TV 네트워 등)
○ 국제적 발언권 확대, 중국 및 아세안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자유치 확대
○ 중국 서구 대개발 촉진, 아세안의 위기의식 불식 및 화교의 적극 활용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3 정상회담에서 주룽지 총리는 **한·중·일 3국 자유무역지대(FTA) 창설 제안(2002.11월)**

○ 동북아(일본, 한국) FTA 추진 가능성

-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 일 등 동북아지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중-ASEAN FTA보다 이득이 더 크나 정치적으로 어려움

- 정치적으로 **중・일간의 신뢰관계** 회복 문제, **북한 문제**(예 : '92년 한・중 수교시 북한이 불만 제기), **일・미와의 관계** 등이 걸림돌

○ 무역 :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 2002년 중-한・일 무역액(1,459억불)은 중-ASEAN 무역액(545억불) 보다 크며, 한-중 무역액(440억불)도 중-ASEAN무역액에 육박 ○ 투자 : 한・일의 대중 직접투자가 아세안보다 큼 ※ 2000년 한・일의 대중 투자액은 58억불, 아세안의 투자액은 28억불 ○ 기술이전 : 한・일은 중국의 중요한 기술도입원 ※ 하이테크분야 기술도입원에서 미국, EU에 이어 일본 3위, 한국 4위 ※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 수출대상국으로서 일본 1위, 한국 6위

○ 중국의 선택

- **당분간 ASEAN과의 FTA 체결에 주력하고** 그후 한중일 FTA 추진 전망

- 중국은 **쌍무적(한-중, 중-일) 협상은 원하나**, 일본과의 주도권 문제로 **3국간(한-중-일) 동시 FTA 추진에는 다소 부정적**

- 중국은 당분간 ASEAN과의 FTA체결에 주력하되, 향후 **한국 또는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면, 중국-ASEAN FTA에 흡수 합병**할 가능성

4. 日 本

○ **WTO 다자주의 취약점을 양자간 FTA로 보완하는 "양방향 접근방식(Dual Approach)" 채택**

- '03.9월 칸쿤 WTO 각료회의 실패를 계기로 양자간 FTA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2002년 싱가포르와 FTA 발효, 2003년 멕시코와 타결 단계, ASEAN과 FTA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 개시
  - 일본-ASEAN 정상회담시 양 지역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관한 기본초안 제출 예정('03.10월)

- ASEAN중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일본과 양자간 FTA 체결을 **일본측에 적극 촉구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
  - 태국과는 연구와 정식협상의 중간단계인 실무자급 협의개시로, 조기타결 기대

- 한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통해 연구 활동 중

- 호주와는 고위급 협의회 설치, 대만은 민간레벨의 연구 제안, 캐나다, 브라질, EFTA, 칠레도 일본에 관심 표명

○ **한국 및 ASEAN이 우선 협상 추진대상, 멕시코도 주요 관심 대상국임**

- 지역협력시스템구축을 통한 정치, 경제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

- 긴밀한 경제관계임에도 불구, 비교적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여 일본의 무역 및 투자확대에 장해가 되는 국가

일본-ASEAN FTA체결효과(경제협력 전문가그룹 보고서, '02. 9월)

○ GDP증가(ASEAN 1.99%, 일본 0.07%)
○ 수출증가(ASEAN 대일 수출 44.2%, 일본 대ASEAN 수출 27.5%) ※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 추진 제안(항공분야 컨소시움, 아시아 TV 네트웍 등)

○ ASEAN과 10년내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제휴 실현 목표 (전체, 양자간 협상 병행 추진)

5. 아시아 主要國의 FTA 推進 政策 및 動向

□ 아시아 주요 국의 FTA 추진 정책 방향

국 가	FTA 추진정책	비 고
일 본	• 경제회복, 중국견제 • 주력시장에서 역차별 완화	• 점차 FTA 重視
중 국	• 아시아 경제주도권 확보	• 국제화추세의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싱가포르	• 아시아 FTA허브 추구	• 해상/항공 간선루트 및 중계 무역기지이점 활용 • 중국-인도의 고도성장에 대응, 지역허브 위상 강화
ASEAN	• 역내통합 심화 • 미·중·일 경쟁관계 활용	• 역내국간 경제격차
인 도	• 중국의 아세안접근강화에 자극 받아, FTA 적극 추진 정책으로 전환	• ASEAN 및 개별국과 FTA 체결 (포괄 경제협력 기본 협정 체결) • 방글라데시등 남아시아 FTA 추진
대 만	• 국제사회 인정 획득	• 중남미국에 집중 관심
태 국	• 자유무역 및 FDI유치확대 경제성장 촉진	• 동남아 허브국화 지향

□ 아시아 주요 국별 FTA추진 동향

국 가	기 체결	협상중	공동연구	검토 중
일 본	싱가포르	멕시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ASEAN
중 국	(홍콩)	ASEAN, 태국	-	한중일, 한국, 호주
싱가포르	AFTA, 뉴질랜드, 호주, EFTA, 일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인도	한국	요르단, 스리랑카
ASEAN	AFTA	중국	인도	일본, EU
인 도	SAPTA,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태국	ASEAN	Mercosur, 남아공, 이집트, 칠레, 우루과이
대 만	파나마	-	-	미국
태 국	AFTA	중국, 바레인, 인도, 호주	-	중국-ASEAN, 일본, 미국, 페루, EU

□ 기타 아시아 개별국별 동향

○ 태국 : ASEAN국가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FTA체결에 적극적

- 대일, 대중협상 추진에 적극적, 인도와는 '03.2월 협상개시 합의
- 호주와의 FTA협상 순조롭게 진행('04. 6월내 체결 전망)
- 중동지역 진출 발판마련을 위해 바레인과 FTA 우선 추진

○ 말레이시아

- 종전 ASEAN차원의 입장에서 양자간 FTA병행으로 정책전환
- 일본과 FTA 제의('02.12월)로 타당성검토 실무자급회의 개시

○ 인도 : 종전의 고립주의에서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전환,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장 적극 견제

- 남아시아국(7개국, SAPTA협정), 아프가니스탄과 특혜무역협정 체결,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면제나 관세인하 실시중
- 스리랑카와 FTA 최초 체결(98.12)이후 ASEAN, 싱가포르, 태국, 인니, 방글라데시, MERCOSUR와 협상중이거나 관심표명

○ 인도네시아 : 일본, 미국, 중국, 호주, 인도 등 5개국과 체결 희망

Ⅲ. 世界 主要國 FTA 成功事例

□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

○ FTA 체결국간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역내기업간 경쟁과 산업구조조정 촉진에 따른 전반적 경쟁력 향상

※ 사 례) EU : 인력,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으로 경쟁력 제고

○ EU : 세계인구의 6.1% 불과, GDP는 전세계 GDP의 24.7%

- 교역규모는 전세계 수출의 39.1%, 수입의 36.5% 점유(2002년 기준)

○ 단일시장계획 10년('93-2001)의 평가

- 추가고용 창출 : 250만명
- 추가GDP 창출 : 8,770억 유로
- EU기업의 경쟁력 제고
  - ㆍ 대역외 수출 : 4,150억 유로('92년) → 9,850억 유로('01년 : 237% 증)
  - ㆍ 대역외 투자 : 180억 유로('92년) → 2,060억 유로('01년 : 11.4배 증)
- 정부조달시장 개방(EU GDP의 16.2%)
  - ㆍ 정부조달에서 역내회원국 낙찰비율 6%('87년) → 10%('98년)

○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대일 적자품목의 수입규제) 사례**

- 1999. 6월 최종 폐지되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전자, 승용차, 일반기계부문은 국내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이 됨**

- 특히, **전자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업체들의 경영실적, 브랜드가치상승율, 반도체, 휴대폰, TFT-LCD점유율에서 **일본기업을 앞서기 시작**

○ 다국적기업의 생산네트워크 확충에 따른 소싱기지화로 기술이전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과 신규 무역 창출

○ 회원국간 시장개방/자유화로 종전 관세·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던 국가시장이 내수시장화 됨에 따라 무역창출 가능

○ 교역파트너가 역외국에서 역내국으로 전환되어도 단순한 무역전환 효과이상의 신규 무역창출효과 발생

- NAFTA역내국 미, 카, 멕 공히 역내교역증가율이 역외증가율을 상회

※ 사 례) NAFTA : 무역창출/전환효과로 역내 교역 지속적 확대

○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1994년 발효, 인구 414백만 명, GDP 11조불)

- 역내국간 무역장벽완화 및 시장개방으로 3국 공히 경제성장 촉진
- 미국 추진 무역협정 중 최초로 노동 및 환경관련 주요 협력부문 포함

○ 역내교역증가율이 역외교역증가율을 크게 상회

- '93- 2001년(9년간) 미국의 NAFTA교역증가율 109%(2,970억불→6,220억불)
- '93- 2001년(9년간) 세계교역증가율 68%(7조5,150억불→12조6,420억불)

○ 3국 역내 교역 증가율 변화('93-2001년)

- 미 국 : 역내교역 연평균 9.4% 증가, 역외교역 5.2% 증가
- 캐나다 : 역내교역 연평균 10% 증가, 역외교역 0.7% 증가
- 멕시코 : 역내교역 연평균 18.3% 증가, 역외교역 9.8% 증가

□ 역내국간 통상마찰 완화

○ 회원국간 불합리한 무역투자 규제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향상

- 통관검역, 기술장벽, 투자제한조치, 정부조달 투명성, 지재권 보호 등

○ 이에 따라 **체결국간 통상 분쟁의 감소 또는 예방** 가능

-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간에는 **보호무역조치를 자제하는** 반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제조치 강화 추세

※ 사 례)
○ NAFTA회원국인 미국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산은 제외

○ 일부 FTA 체결국간에는 **반덤핑협의 적용을 상호 배제**하며, 통상분쟁 조정기구의 설치 운영을 통해 자체 해결

※ 사 례)
○ 호주-뉴질랜드 경제협정(CER), 칠레-캐나다 FTA는 체약국간 반덤핑 제소 불인정
○ NAFTA 경우 분쟁발생시 패널이 즉시 구성하여 8개월 내에 판정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 FTA로 **역내 투자환경 개선** 가능

- 시장규모 확대, 법적·제도적 장치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안정성과 활동여건 개선

○ 확대된 시장에서 **영업기회 확보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 현지투자시 물류비용 절감, 마케팅 효율성 증대, 인근시장진출 용이
- 특히, **역내 생산거점 확보시 실질적 역내 무관세 혜택** 가능

※ 사 례)

<u>① NAFTA : 기업경영여건 개선으로 FDI 유입 급증</u>

○ NAFTA로 북미지역은 경쟁력을 갖춘 경제통합지역으로 부상

○ '94-'00년중 3개국에 유입된 FDI(외국인직접투자)는 1조 3천억불로 같은 기간 세계전체의 28%를 차지
- 對캐나다와 멕시코 투자액 협정체결전 대비 각각 4배와 3배 증가

<u>② EU : 역내시장 확대로 FDI 유입 급증</u>

○ 신규 FDI유입 증가 : '01년 유입액이 '92년 당시보다 4배 이상 증가

③ AFTA(5억 2,200만명, GDP 5,800억불) : 아세안 역내시장 통합심화에 대응 다국적 기업 현지 생산 네트워크화 강화

○ 일, 미 자동차메이커: 아세안시장 특화 생산 및 서비스역량 강화

- 혼다자동차(태국 생산거점, 아세안모델 생산), 토요타(아세안내 생산, 조립, 금융 및 훈련센타, 부품공급 기지망 구축) 등

○ 마쓰시타전자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내 생산네트웍의 보완기능 강화, 부품 상호공급 확대

※ 특히 **태국**은 아세안 중심부에 위치, 경제 우선 정책의 결과 **"아세안 생산기지"**로 부상중: FDI신고액 48.3억불('03.1-8)로 전년동기비 49% 증

④ 폴란드 : EU 범유럽 운송망 확충 대상 핵심국가로 부상('04년 EU가입)

○ 총 18개 유럽횡단 운송망중 2개가 폴란드가 거점
- 고속도로, 철도, 항만시설 확장에 92억유로 투자(EU기금 50% 충당)

⑤ 체크 : FDI유입 급증 ('04년 EU가입)

○ 우수한 사업환경, 계획적인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제공으로 주요 다국적 제조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성공
- '98년 37억불 → '99년 63억불 → '00년 50억불 → '01년 53억불 → '02년 93억불

□ 국민후생 증진

○ 무역창출/전환 효과, 기업 경쟁력 향상,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등으로 신규 고용창출

○ 수입자유화로 상품가격의 전반적 하락 및 다양화

※ 사 례)

NAFTA : 고용창출과 임금상승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

○ 미국 : 역내수출증가로 91만 명('93-'00년)의 고용증대효과가 발생, 관련분야 종사자의 임금이 미국내 평균보다 13~18% 높음

○ 캐나다 : 수출분야 임금이 여타분야보다 35%정도 높음

○ 멕시코 : '94-'00년 동안 제조업분야 총고용창출의 절반이 수출분야에서 발생(이 분야 임금은 내수위주제조업보다 40% 높음)

EU : 단일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EU집행위, 2002.9)

○ 유럽소비자들의 80%이상이 상품종류가 늘어났고 67%가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

○ 수출기업(6개국 이상 수출)의 76%가 단일시장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36%이상의 기업들이 단일시장으로 이윤의 증가를 경험

칠레 : 수입시장개방을 통한 자유경쟁여건조성 → 물가하락, 상품 다양화

○ 물가상승률 : 12.7%('92) → 6.6%('96) → 2.3%('99)→ 2.2%('03. 9)

○ 전세계 상품이 자유 경쟁하는 남미시장의 테스트 마켓

IV. 主要 FTA市場에서 韓國商品 差別 事例

□ FTA 확산 속에 우리기업들은 FTA 未 締結에 따른 관세·비관세 장벽, 정부규제 등 불이익을 받아 글로벌경쟁에서 어려움 직면

○ FTA협정에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이 폭 넓게 포함되는 추세로 파급효과가 전통적 무역확대 효과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남

- 예시 : 세계 무역의 80%가 기술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EU무역의 50%는 강제규격인증에 합격해야 교역가능(OECD)

○ 주요 흑자시장인 중남미는 FTAA, Mercosur 등 활발한 지역경제 통합노력과 함께,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FTA체결움직임으로 현지 우리기업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양상임

○ 관세장벽보다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나 관세장벽과는 달리 이는 정확한 실상 파악조차 어려움

※ 사례 1 :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상 애로

○ 현 자동차 수입정책(현지생산라인이 있는 자동차업체에 한해 수출물량만큼 수입허가)은 2004년부터 폐지

- 그러나, 2004년부터는 50%의 고율 관세 부과 예정, 대멕시코 자동차수출은 가격경쟁력 상실로 매우 어려운 실정

○ 반면, 미국, EU 등 FTA체결국에 대해서는 일정량에 한정, 수입 허용 중 (현 수입관세 10%, 점진적 인하)

-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자동차협정에 따라 '04년도부터 무관세대우 예정

○ '03년 10월중 타결 예정인 멕시코-일본간 FTA까지 체결시 한국산 자동차 사면초가에 봉착 예상

※ 사례 2 : 멕시코, 정부발주 대형건설 프로젝트 참가자격 제한

○ PEMEX(멕시코 석유공사) 등 정부발주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FTA 회원국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참여 자격 부여

- 한국건설업체들은 입찰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 다만, 입찰참여 업체가 적어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만 PEMEX의 요청으로 FTA 비 회원국에 대해 참여를 허용하는 상황

※ 사례 3 :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 브라질 정부는 타이어 규격이 국제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FTA나 상호 규격인증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산에 대해 자국 I-Mark 획득 강요, 통관지연, 추가 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경쟁력 저하 요인화

○ 멕시코도 수입 타이어에 영문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자국내 스티커 규격에 따라 스페인어 규격 표시 부착 의무화

○ 멕시코는 가전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 자국업체에 유리한 안전규격 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규격검사를 자국 업체에 위임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냉장고의 포장재 사용 및 방역조치에 대한 한국내 발급증명을 무시하고 재포장 및 방역조치를 요구하는 등 부당대우

※ 사례 4 : 브라질, 멕시코 최저가격제

○ 수입통관시 일정가격이상의 신고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입상품의 관세부담을 높이고 자국산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

○ 신제품 출시/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경제침체기에 한국산등 역외국산 수입품은 시장기반 상실위험에 직면
- 멕시코 : 3년간 수입품 가격동결로 VCR, TV등 역외국산 전자제품수입제한 장벽으로 작용

※ 사례 5 : EU CE마크(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 EU와 상호인정 협정 미 발효로 주요 수출품목의 CE마크 획득이 없이는 수출 불가 - 대상품목은 기계, 완구, 전기・전자제품, 통신기기, 의료기기, 승강기 등 21개 품목군(對 EU 수출품목 중 34.5%를 차지) - 최근 EU의 자동차안전기준 강화, 무선통신 및 통신단말기기, 냉각장치, 진단용 의료기기 등에 대한 CE마크제도 추가실시 ・귀금속, 형광등 안정기에 대한 CE마크 기준 논의 중 ※ CE마크 취득 평균소요기간 및 비용(예시): 평균 920만원, 3개월 요 ・전자제품 2~3개월, 자동차 7개월(15만불 정도), 승강기 1년(3만불정도)

※ 사례 6 : 대EU 섬유제품 수출 경쟁력 상실

○ EU-터키간 관세동맹으로 터키산 섬유제품은 무관세로 EU에 진입 ○ 한국 K사의 경우, 주력 레이온 제품에 대해 EU로 수출시 4.6%의 관세를 적용 받으며, 원거리로 인한 수송비용, 재고부담 등으로 터키산에 비해 경쟁 절대 불리 - 일부 품목은 터키산과의 경쟁에서 최고 20%까지 시장을 잠식당함 ※ 가격경쟁이 치열한 섬유제품 특성상 상기 관세율 격차는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이라는 것이 동사의 분석

※ 사례 7 : 대헝가리, 자동차 수출 EU산에 경쟁력 상실

○ 1992년부터 헝가리는 EU 가입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 공산품의 경우 현재 거의 무관세 - 한국산 관세율은 실린더 용량 1,600cc이하 승용차 13%, 1,600cc초과 23%, 트럭 25%(자동차부품 6-10%, 비디오/오디오 10%) 수준 ○ 실린더 용량 1,600cc이하 소형 승용차는 13% 관세를 내고서도 일정량 수출을 하고 있으나, 중형승용차는 현지시장 진입이 어려움

※ 사례 8 : 대말레이시아, H형강 가격 경쟁력 상실

○ 현재 말레이시아는 H형강 생산업체 PERWAJA BHD 부도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월 4만 톤 정도인 국내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

- 수입관세는 ASEAN 회원국산 5%, 비 회원국산은 20%를 부과

- 이 결과, '02년 한국산 H형강 대말련 수출실적은 태국 등 경쟁제품보다 품질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차별로 가격경쟁력 상실

· 이전 최대 수출실적 대비 1/10 수준인 약 2만톤(US$6.6백만)으로 급감한 반면 태국 SIAM YAMATO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90%상회

○ 한국산 H형강 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했던 현지 지상사의 대부분이 채산성 악화로 수출을 포기한 상태

※ 사례 9 : 대베트남, 紙製品 수출 경쟁력 완전 상실

○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에 의거 베트남은 그 동안 정부차원의 시장 보호를 받아오던 종이류의 수입관세 40~50%를 '03.7월부로 AFTA 역내국산에 한해 20%로 인하('06년도부터는 5%로 재인하)

○ 지난해 약 5,000톤(250만불 상당)의 수출실적을 거두었던 한국산 신문용지 경우 AFTA 역내국산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로 경쟁력을 완전 상실

○ 결국, 대 베트남 종이류 수출은 AFTA 시행의 최대 피해품목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 사례 10 : 칠레(대 EU로 무역전환: 칠레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 2003.2월 칠레-EU간 FTA발효이후 최근 4개월(03.2-5월)간 칠레 총수입액 55억불중 3,000만불 상당이 EU로 수입선 전환

- 이 기간중 칠레의 대 EU 수입은 2억 3,700만불(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 '03. 2-5월중 FTA로 인한 칠레의 대 EU 수입전환은 주로 대미, 한국 수입 분에서 발생(**수입전환액의 60% 상당**)

- 대미 수입 감소분 : 대 EU 수입전환액의 1/3 (1,070만불)

- 대한국 수입 감소분 : 대 EU 수입전환액의 29%(940만불)

* 한국에서 EU지역으로 수입선이 전환된 자동차, 핸드폰, 금속제품의 EU산 수입이 3배 증가
(자동차→ 프랑스, 핸드폰 → 독일/프랑스/핀란드/스웨덴/영국, 알류미늄 및 아연류 금속제품→ 룩셈부르크 산으로 수입선 전환)

= 끝 =